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7-8133 사무실

生藥계약生産計劃

○… 목적 : 단일개량품종(증산및 약효우월품)에 대한계약생산효율을 측정하고 협회조직의 활성화 및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산하조직의 계통출하에 근대화를 기한다. …○

柴胡(改良品種)계약栽培 試圖

地域別 指定및 希望者모집으로 50余萬坪

▲방 침

가、시호 단일품종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한다

나、계약재배는 희망자위주로하되 부분적으로 선정재배할수 있다。

다、수확품은 전량수매및 수출한다。

라、재배계약서는 별도작성한다。

마、각군 지부에서 해당지역을 관장한다(도 채임자 차후 선정 통보)

▲세부사업계획

가、파종 및 수확

지역별	면적
강원도지역	5만평
경기도지역	10만평
경북도지역	11만평
충북도지역	5만평
충남도지역	5만평
전북도지역	5만평
전남도지역	5만평
경남도지역	5만평
계	51만평

※세부계획사항 추후발표

나、소요예산

・종자 : 1ℓ당×@10、000원×2、550ℓ=2천5백50만원

・수매자금 : 1kg당×10、000원×204、000kg=20억4천만원

・가공시설자금 : 1억5백만원

다、실시 및 지원부서

・지원부서 : 한국생약협회중앙본부

・종자공급 : 흥일농산(대표 : 송경태)

・수매 : 흥일농산

・수출 : 흥일농산

・수매자금지원 : 농산물유통공사 50% 지원건의 (약10억)

・가공시설조제자금 : 농림수산부 전작과 지원건의 (생약조제 시설자금 1동분)

라、재배기간 : 89년10월～90년11월

▲행정사항

가、재배계약서작성 : 흥일농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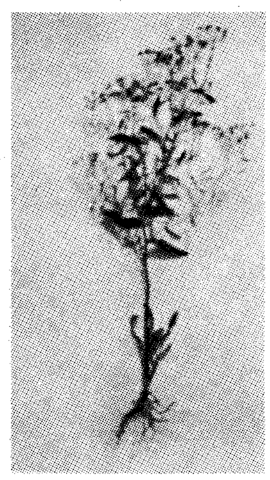
나、재배희망자 모집홍보 : 89년9월～10월31일 (한국생약보및 농민신문)

다、지정재배자선정 : 협회 및 흥일농산

라、종자공급 : 흥일농산 (89년10월말까지)

마、협회산하공문시달 : 89년9월말까지

바、수확당시의 시세와 출하 및 집하장소 또는 제반조건은 재배계약서상에 포함한다。 <협회사무국제공>



◇植物

◇藥材

生藥需要量파악 報告 再促求

지역별로 파악이 진정 不可能한가? 고의적으로 파악을 기피하는가?

협회는 輸入開放時代에 적응하고저 지난 7월초에 각 지역별 시・도 支部長 관장하에 녹생회등을 통하여 지역별 소비량을 파악 (예상량도 가능) 8月末까지 필착토록 수차 당부한바 있으나 9月현재 제출건수는 1%(전북)에 不過하고、99%는 중간연락조차 없는形便으로 실로 안타까운 마음 禁할길이 없다。이와같은 현상은 昨今의 各支部 行政능력등을 고찰할때 결코 능력不足에서 오는 近因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誠意不足에서 오는 기피的인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電子時代라고 하지만 中央에서 일일히 다 어떻게 파악할수 있겠습니까? 各支部長의 음양의 支援이 必要하기 때문에 組織體制를 구성하였고 또한 當事者들의 뜻에 따라 오늘날까지 社團法人體로서의 名分을 各 地方에서 活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때、組織의 一員이라고긍정을 한다면 결코 이러한 行政업무를 등한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分野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要請하는 자료에도 最善을 다해 협조해야 할 처지에 있는 公益團體인데…하물며 산하團體에서 對岸의 불구경하듯 미루어 버린다면 어느누가 이일을 해낼수 있겠습니까? 설사 輸入施策上 반영되는 生産對需要量 比較에서 成果가 대수롭지 않더라도 이를 不問하고 自體만이라도 各地域別로 또는 中央集計가 具備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本現況파악은 꼭 實施되어야 한다는 것을 再強調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10월10일까지는 本指示文을 접수한 各市・道支部長께서는 깊이 留念하시어 支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連載 韓方순례 〉9〈

<續>

현대의학에서 만일 눈이 나쁘다면 단순히 눈의 직론적인 치료법을 선정、그 병명을 찾아내어 그 부위만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습관과는 얼마만큼 현격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수있을것이다。아무리 분석적으로 병소(病巢)를 찾아내고 병인을 좇아도 한의학에서의 종합적이며 연쇄반응의 기관별 유기성을 살린 치료법에는 필적하지 못한다하겠다。

혀에 태(苔)가 끼면 위장의 변조를 가리킨다。폐에 열이 차면 코가 마른다。신열(腎熱)이 있으면 농혈(膿血)과 농이(膿耳)로 변하며 신이 허하면 이농이 된다는 등의 상관반응을 활용할때 예방의학은 물론 질병자체의 치료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에 관련된 내장진단법의 실례를 살펴보자。

7、내장 진단법

내장은 상호간에 관련되어 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르는 것은 생명자체의 주체로서는 자기자신하나뿐이지만 생명의 활동에 임해서는 단독으로 생활할수 없게 운명 지어져 있다。동양철학에서는 일체의 생성(生成)운동이 음양의 이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제가 스스로 틀리지만 기독교 사상에서보아도 창조된 원조(元祖)아담에게 결국은 이브라는 여성친구를 동반시키고야말았던 것이다。이처럼 인간은 생존 그 자체가 혼자일 수 없다。그와같이 인체의 작용이나 장기 및 각부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혹자는 손발이 잘려도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온 몸은 경종속에 초긴장、이에 대처한다。만일 내장에 관계된 어떤 장기가 고장이 났다든가 유지불능이 된다면 결국은 다른 내장도 정지되고 만다。이는 외피부위의 상실 정도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의 근원인 기혈을 생성시키는 오장육부야말로 무엇보다도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된 유기체란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오장이 약하면 육부에 영향이 가고 육부가 약할때 오장을 통해서 그 취약점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내장의 진단법은 이와같은 유기적인 연관성을 이용하여 병을 고치든가 예방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순환경로를 통한 반응작용과는 또 다른 경험측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祝) 發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경상북도 지부

지부장		안승관
의성군	사무소장	박종연
영풍군	〃	전재성
영천군	〃	김필진
상주군	〃	곽해명
청송군	〃	강은종
월성군	〃	조원제
영주시	〃	류복규
영덕군	〃	배태환
김천시	〃	신현호
군위군	〃	박원섭
경산군	〃	배성환
경주시	〃	최상환
울릉군	〃	배석태
영천시	〃	박영태
문경군	〃	강용대
안동군	〃	권응화
포항시	〃	김영식
상주시	〃	이재문
금릉군	〃	제명환
구미시	〃	이춘호
울진군	〃	심진수
선산군	〃	서상갑
봉화군	〃	박균철
예천군	〃	안봉식
영양군	〃	김정수
상주군	공판장	곽춘기
울진군	〃	박도식
김천시	〃	허영

1989년 9월 20일 현재